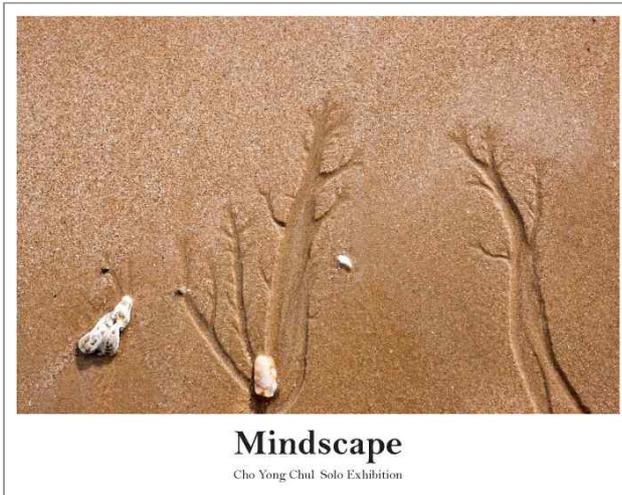


## 마음풍경: 조용철 개인전

## Mindscape: Cho Yong Chul Solo Exhibition



전시명 : 마음풍경: 조용철 개인전

Mindscape: Cho Yong Chul Solo Exhibition

일 시 : 2014. 5. 1 (목) - 5. 18 (일) (18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품작 : 사진 46 점

담 당

이예림 (lee@hakgojae.com)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140501 - 20140518 마음풍경: 조용철 개인전]

##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는 오는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사진작가 조용철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29년 사진기자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가 작가로서의 세계를 새로이 선보이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작가는 삶에서 스치듯 만난 바람과 구름, 새와 꽃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술회한다. 조용철은 카메라의 눈으로 본 세상과 존재는 모두 평등하다고 믿는다.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작가는 사진 대부분의 초점을 작고 하찮은 생명 그리고 우리가 쉬이 지나가는 자연의 조각에 맞추고 있다. 이번 전시 ‘마음풍경: 조용철 개인전’은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대화이며, 나아가 보는 이들에게 건네는 꿈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조용철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피사체를 카메라에 옮긴다.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상을 어루만지는 그의 사진은 메마른 일상에서 쉽게 잊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그 중 ‘새’는 그의 사진에서 빈번히 찾아볼 수 있는 소재이다. 작가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다. 나아가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사소한 장면을 바라보며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하여 자연의 내면 깊이 들어가 공감하고 소통하며,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운 공존에 대한 생각을 전한다.

‘마음풍경: 조용철 개인전’은 그가 10년간 담아왔던 자연과 사람에 대한 마음의 기록이다. 전시에는 사진과 함께 그가 사진을 찍으며 가졌던 생각을 담은 글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이 생각들을 모아 그의 첫 번째 사진집을 출간했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 46점을 포함하여 총 141점을 담은 사진집 『마음풍경』(학교재)이다. 사진집은 ‘새가 되다’, ‘자연을 보다’, ‘사람을 만나다’, ‘희망을 품다’의 네 가지 구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새, 자연, 사람 그리고 그 길 끝에 만나게 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페이지 마지막에는 지난 4월 16일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보내는 단원고 정문 앞에 놓인 쪽지 사진을 실어 희생자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 2. 작가 약력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카메라를 만졌다. 월남전에 참전한 외삼촌이 가져온 카메라 덕이었다. 카메라가 귀하던 시절, 기념사진 촬영을 도맡았다. 한양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며 보도사진반 활동을 했다. 빈민가와 재개발 지역 등을 기록하며 사회 문제와 민주화에 관심을 가졌다. 1985년 중앙일보 사진기자로 입사해 판문점, 국회, 청와대를 출입했고 2011년부터 중앙선데이 영상에디터를 맡고 있다. 1980년대 말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과 노사분규, 직선제 개헌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뛰었다. 실크로드, 남북장관급회담, 북한의 고구려 고분도 취재했다. 2004년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자연과 작은 생명들을 통해 위로받으며 사진을 담아왔다. 보도사진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쫓아 사진을 한 지 10년, 마음풍경은 그 10년의 기록이다. 한국보도사진전 대상(당원에 머리끄덩이 잡힌 당 대표·2012년), 피쳐 부문 최우수상(빛방울 속 해바라기축제·2009년), 2013년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진전 '피꼬리는 혼자 노래하지 않는다'(2008년) 개인전과 '취만부동'(2009년), 천년지우 양저우'(2011년), 한·중 사진 교류전(중국·2012년)에 참여했다.



당원에 머리채 잡힌 당 대표, 2012 (한국보도사진전 대상)



빛방울 속 해바라기 축제, 2009 (한국보도사진전 feature 최우수상)

### 3. 작품 소개



새가 되다, 2007, 피그먼트 프린트, 100x150cm, edition of 7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  
나는 한 마리 새가 되었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구름을 사랑하는 겨울새.  
텅 빈 들녘 바람 높이 불던 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하루살이 날갯짓, 2011, 피그먼트 프린트, 50.6x70cm, edition of 7

하루살이가 떼 지어 비행합니다.

구애를 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열정적인 신혼 비행과 산란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도 하루살이 아닐까요.

힘찬 날갯짓으로 생을 마감하는 하루살이처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공생의 날갯짓을 해야겠습니다.

탐욕이란 마음의 상처일 뿐이니까요.



빛방울 속 해바라기 축제, 2009, 피그먼트 프린트, 50.6x70cm, edition of 7

해바라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해바라기를 찍어 뭘 할까  
돌아서는 눈길이 거미줄에 걸렸습니다.  
    풀잎은 별을 품고,  
    별은 해바라기를 품었습니다.  
바람 불어 사라질 별 별 별…….



노을빛 바닷가에서, 2012, 피그먼트 프린트, 20x31cm, edition of 7

철 지난 바닷가에 왔습니다.

지난여름 그 많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없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인심 또한 저 파도 같은 물거품이 아닐까요.

저기 작은 섬 소나무들은 변함없이 오늘도 푸른데요.

스멀스멀 노을이 피어오릅니다.

내 마음도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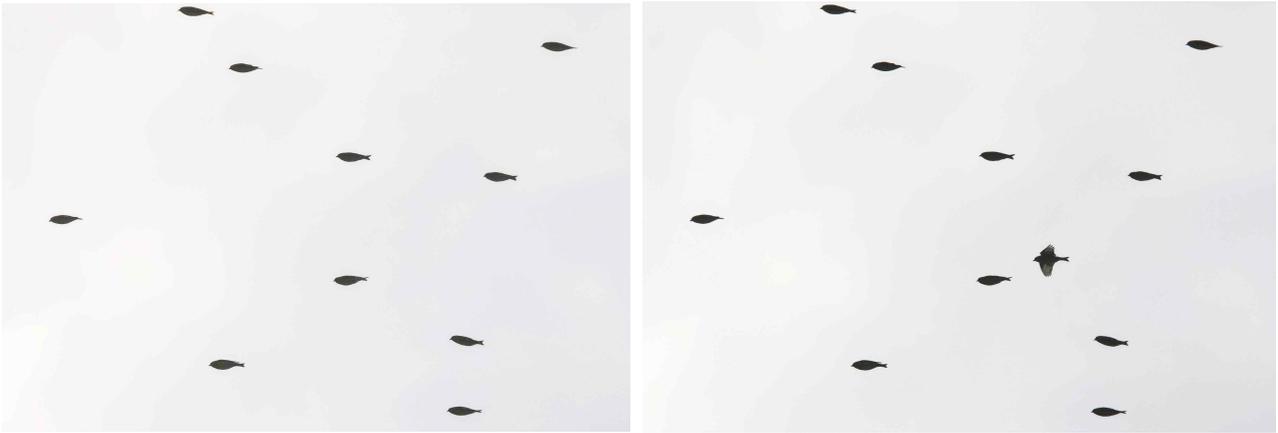
여름날이 아쉬운 아이들도 노을 속으로 뛰어듭니다.

노을빛 세상, 노을이 참 고운 가을날입니다.



생각이 자라다, 2010, 피그먼트 프린트, 100x150cm, edition of 7

겨울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상념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바다.  
썰물이 빠진 바닷가에서 나무를 보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찬 바람 속에서 자라난 나무.  
모래밭에서 꿈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도 물고기 산다, 2008, 피그먼트 프린트, 100x150cm, edition of 7 (each)

하늘에도 물고기가 산다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는 물고기도 있으니까요.

하늘을 날아올라 수면 위를 나는 새를 잡아먹습니다.

강물을 박차고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처럼,

하늘을 힘차게 나는 물고기 떼를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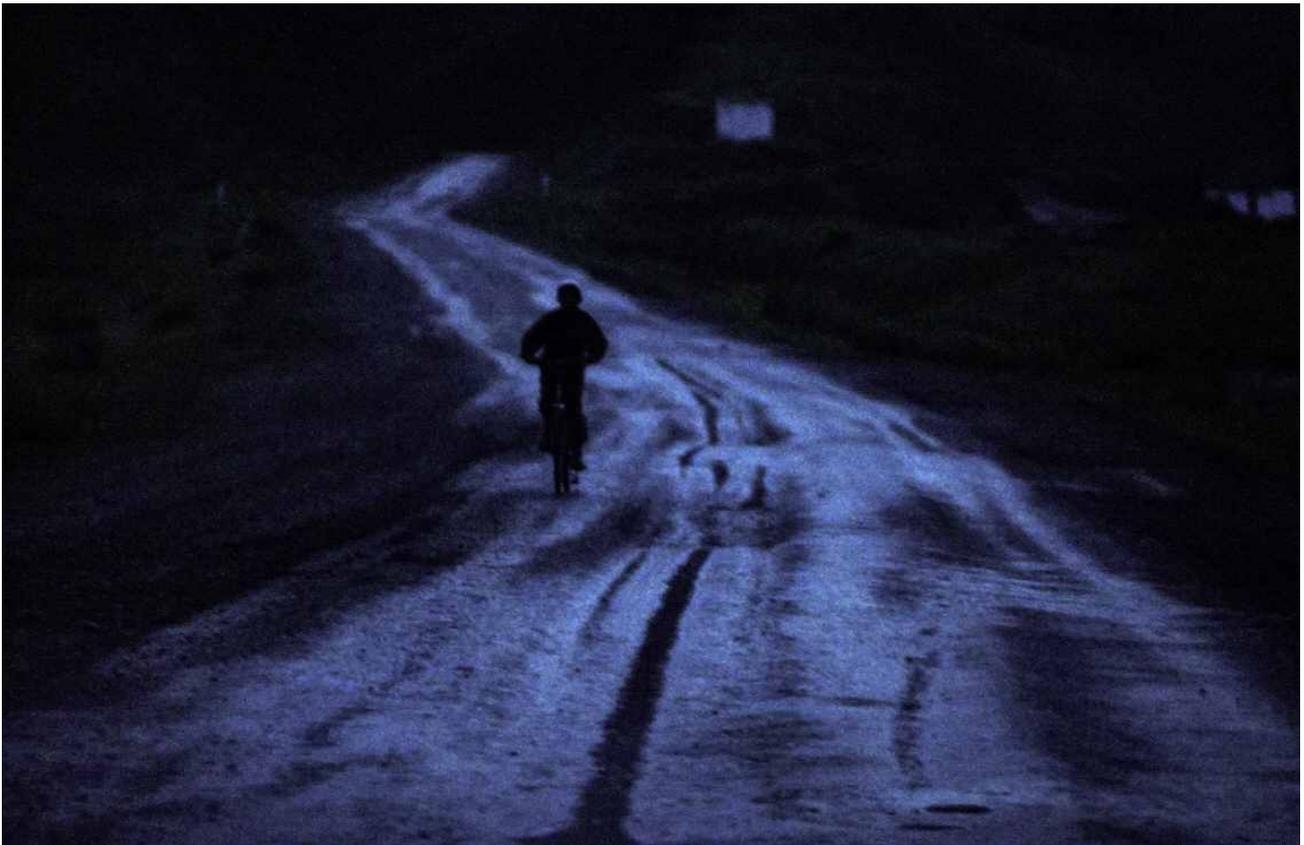
검은머리방울새가 떼 지어 날아갑니다.

나는 한 마리 방울새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겨울새입니다.

어느 날 사라져 버린 작은 새입니다.

가슴속에 사는 희망의 새입니다.



꿈길에서, 2005, 피그먼트 프린트, 150x225cm, edition of 7

사진은 빛의 예술입니다.

빛이 없으면 사진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이 사진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긴 터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먼 이역 땅에서 밤길을 달려오는 소년을 만났습니다.

## 4. 서문

### 가슴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연민의 아름다움

조용철 사진기자의 카메라의 눈은 인간의 눈이되 신의 눈이며 자연의 눈이다.  
자연과 신이 인간의 눈을 통해 자신의 마음의 풍경을 고요히 드러낸다.  
따라서 그의 눈은 연민의 눈이되 아름다움의 눈이며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되 깊은 슬픔의 눈이다.  
그의 눈이 닿는 곳은 크고 화려한 곳에 있지 않고 작고 하찮은 것들에 있다.  
자본주의의 경쟁적 일상을 사는 우리들 가슴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어떤 연민의 아름다움을 건져 올린다.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메마를 때,  
사랑을 잃고 거리를 헤맬 때  
그의 사진은 우리의 인생을 성찰하게 한다.  
나는 그의 사진을 통해  
'사진은 인간이 찍되 그 감동과 진실은 신이 선물한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그는 신과 자연과 가까운 사람이다.

정호승 시인

## 5. 작가노트

사진은 내 마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하면 슬픔을 담고,  
기쁨이 넘치면 기쁨을 담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피사체를 바라보면 사랑을 담고,  
분노의 눈으로 피사체를 보면 분노를 담습니다.

이정표 없는 마음을 좇아 마음풍경을 담습니다.  
마음풍경은 작고 하찮은 생명과 존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크건 작건, 귀하건 비천하건 생명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오히려 작고 하찮은 생명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하찮다 눈길조차 받지 못한 존재의 하소연이라고 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도 사연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큰 꿈과 희망을 전해줍니다.  
카메라 렌즈는 피사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존재는 평등하니까요.  
마음풍경은 생명과 존재에 대한 사랑이며 대화입니다.  
경이로운 생명의 몸짓에서 꿈과 희망을 찾습니다.  
신비로운 우주와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낍니다.  
사진을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2014년 봄  
조 용철